

「忠臣蔵」討ち入り出発の地 - 吉良邸を目指す -



「忠臣蔵討入」(大判三枚続)
すみだ北斎美術館蔵

「吉良邸討ち入り」集結地のひとつ、堀部安兵衛の剣術道場はこの辺りにあった。ここから安兵衛らが、杉野十平次宅や前原伊助宅を出発した浪士と共に、表門と裏門の両門から吉良邸へ討ち入ったのは元禄15年12月14日寅の刻。明け方には討ち取りの合図が鳴り響く…。吉良邸まではわずかな距離だが、「松の廊下事件」から1年と9か月、ここに至るまでの道のりは、長く、険しいものであったにちがいない。

‘주신구라’ 습격의 출발지 - 기라 저택을 향하여 -

‘기라 저택 습격’의 집결지 중 하나로, 호리베 야스베이의 검술 도장이 있었던 곳이다. 겐로쿠 15년 12월 14일 (서기 1703년 1월 30일) 인시(寅時), 야스베이 등이 이곳을 출발하여 스키노 주헤이지댁과 마에바라이스케댁을 출발한 낭사(섬길 주군을 잃은 무사)와 함께 정문과 후문 양쪽에서 기라의 저택을 습격했다. 새벽녘에는 공격 신호가 울려 퍼진다……기라 저택까지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마쓰노로카 사건(이들의 주군인 아사노가 기라를 향해 칼을 뽑았다는 이유로 할복 명령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후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오는 길은 아주 길고 험했음이 틀림없다.

現代図



古地図

